

(가칭)여성사회연대를 설립합니다.

이 땅의 여성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사회의 주체적 한 구성원이자 주인으로서 발언하고 권리를 찾기 위해 오랜 세월을 싸워 왔습니다. 일제하로부터 해방공간을 거쳐 오늘까지 이어져 온 우리 사회의 암울한 정치사회속에서도 여성들은 고통에 찬 노동으로 헌신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온 주역이었습니다. 여성들의 지난한 투쟁은 이미 수십년전 부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자각과 함께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절반의 주인인 여성들은 오늘도 다양한 곳에서 일하고 있고, 또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고자 투쟁하고 있습니다.

흔히 과거에 비해 여성들이 살기 좋은 사회가 되었다고들 이야기합니다만, 과연 여성들의 삶의 고통, 그 무게가 줄었는지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들이 살기 좋게끔 많은 제도가 만들어졌고, 많은 정책들이 나오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있고, 실감하고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여성들의 삶을 개선시키려면 아직 멀었다”고 느끼고, 생각하고, 또한 여기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진정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기를 원하는 여성, 또 많은 남성 동지들의 참여와 지지, 지원에 힘입어 (가칭)여성사회연대의 설립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민족민주운동연구소를 인수하게 됨으로써, 처음부터 하나씩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었기에 보다 수월하게 첫 발을 떼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민족민주운동의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민족민주운동연구소 동지들의 귀중한 자산을 바탕으로 첫 발을 떼어 놓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는 우리 (가칭)여성사회연대가 해야 할 일은 꽤이나 많을 것 같습니다. 아직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첫 발을 떼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들로서는 굳이 욕심을 내지 않고 한 가지 과제를 책임있게 수행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방향과 과제에 관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확정해 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우리가 하려는 일을 가늠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비중있게 다가옵니다. 여성해방은 곧 정치적인 평등이며 해방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우선 여성 정치지도력을 형성하고 여성들의 정치 세력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가정-직장, 사회-문화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여성해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좀 더 구체화 시켜본다면, 우선 여성들의 정치적 지위나 정치 활동과 관련한 조사-연구, 여성 정치 교육 및 상담, 여성 정치 이론 및 정책 개발 등의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외에도 국내외 여성단체나 정치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이들 단체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여성 인력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여성들간의 정보 교환 및 친목도모 등을 위한 제반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 세미나, 간담회, 연구발표회 등 다양한 모임을 진행할 것입니다.

(가칭) 여성사회연대는 그동안 민족민주운동과 사회운동에 헌신해 온 여성 활동가, 그리고 각 계층별 여성운동에 참여해 온 여성 운동가, 교육-환경-언론-소비자 운동에 참여해 온 실천가 및 진보적 학자, 개혁적인 정치가 등으로 구성하여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여성관련 제반 문제들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고자 합니다.

대체로 이러한 방향에서 준비에 착수하려는 우리들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가 어느 때보다도 소중합니다. 8월부터 준비에 착수한 (가칭)여성사회연대 준비모임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설립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고언 바랍니다.

(가칭)여성사회연대 설립 준비모임

종로구 종로6가 239-30 세경빌딩 502호
☎ 765-6807 fax 744-2893